

다니엘서 - 제52번

예언의 수수께끼를 풀다: 다니엘의 환상과 왕국들의 흥기

Jeff Pippenger

2024-01-16

지난 글에서 우리는 가브리엘이 두 증인을 근거로 1844년이라는 연대를 확증하기 위해 '마지막 진노'의 끝을 제시했음을 지적했다. 밀러는 유다 왕국에 대하여 시행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이해했지만, 그 '일곱 때'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 대하여 갖는 목적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가 19절에서 '마지막 진노'의 구분을 인식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그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진노'가 '일곱 때'를 뜻한다는 점은 틀림없이 이해하고 있었다. 첫째와 마지막 진노에 대한 빛은 1856년에 팔모니에 의해 봉인이 풀렸으나, 1863년에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일곱 때'에 관한 밀러의 메시지는 제한적이었지만 옳았다.

밀러는 다니엘 8장 11절에서 이교 로마의 작은 뿔이 이교를 들어 높이고 숭상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밀러는 '제거하다'를 다니엘서에서 세 번 모두 단순한 제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메시지는 제한적이었지만 여전히 옳았다.

밀러주의자들은 11절의 '성소'가 로마 시에 있는 이교 사원(판테온)임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히브리어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밀러의 메시지는 예언적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가 열리게 된 역사적 맥락은 그들로 하여금 미국을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보는 것을 막았고, 더 나아가 그것은 교황권을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으로 보는 것마저 막았다.

그들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에 떠밀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예언들을 적용했고, 실망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옳았다. 15절부터 27절에서 가브리엘이 두 환상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때, 밀러의 이해는 9절부터 12절에서 작은 뿔의 성별 교차에 나타난 왕국들에 대한 더 넓은 계시를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밀러파는 가브리엘의 해석에서 로마만을 네 번째이자 최종적인 지상 왕국으로 보았다.

그때에 나, 곧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구하고 있을 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서 있었고, 나는 울라이 강둑 사이에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매, 그가 올 때에 내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으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더니, 그가 나를 만져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분노가 마침내 끝날 때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정한 때에 끝이 있을 것임이라. 네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의 왕이며,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 뿔이 꺾이고 그를 대신하여 넷이 일어났은즉, 그 나라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로는 아니하리라. 그들의 나라 마지막 때에, 범죄하는 자들이 가득

찰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권세가 강하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놀랍게 멀하고 형통하며 임의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또 그의 꾀로 말미암아 속임수가 그의 손에서 번성할 것이요, 그는 마음으로 스스로 높이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을 멸하리라. 또 그는 군주들 가운데 군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꺾이리라. 저녁과 아침에 관한 환상은 참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봉하여 두라. 이는 여러 날 후를 위한 것임이라.” 나 다니엘은 기절하여 며칠 동안 병들었더니, 그 후에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으며,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니엘 8:15-27.

다니엘은 오래 강의 환상을 받았지만(그 환상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 바벨론의 역사에서는 첫째 왕국이 그 환상에서 제외되었다. 첫째 왕국은 2장과 7장에서 금 머리와 사자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8장에서는 바벨론의 제거와 회복이라는 예언적 속성이 강조되었다. 느부갓네살은 '일곱 때' 동안 사람들에게서 쫓겨났을 때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를 예표했고, 이로써 두로의 음녀가 잊혀지는 상징적인 칠십 년 또한 예표하였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바벨론이 성경 예언의 왕국들에서 잊혀지고, 환상은 메대와 바사(수양)로 시작한 뒤 그리스(숫염소)가 뒤따른다.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은, 7장에서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으로도 묘사되었듯이, 알렉산더보다 권세가 약한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넷'은 동서남북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를 상징한다. 8장 8절에서는 네 개의 두드러진 것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일어났다. 7장에서 그리스의 네 날개는 8장의 네 바람과, 그리스의 네 머리는 네 개의 두드러진 것들과 서로 대응한다. 네 머리와 네 두드러진 것은 알렉산더의 본래 왕국이 분열되어 생긴 네 왕국을 나타내며, 네 날개와 네 바람은 분할의 네 영역을 상징한다. 이 구별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로마의 넷째 왕국에 대한 개신교의 전통적 이해에 맞서 밀러주의자들이 제시했던 논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843년과 1850년 개척자 도표로 대표되는 하박국의 표들에는 예언적 적용을 설명하지 않는 표상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 개의 머리와 현저한 네 개의 뿔, 그리고 네 개의 날개와 사방의 바람 사이의 구별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이 로마라는 진리를 흐리게 하려는 시도로, 사탄은 네 개의 머리와 현저한 네 개의 뿔, 그리고 네 개의 날개와 사방의 바람의 참혹은 거짓된 의미에 관한 논쟁을 제기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은 다니엘서가 그 환상을 확립하는 하나의 뚜렷한 상징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징을 확증하는 증거의 일부는 네 개의 머리와 현저한 네 개의 뿔, 그리고 네 개의 날개와 사방의 바람에 있다. 개신교도들은 이 논쟁에 대한 사탄적 견해를 지지했고, 이 논쟁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들은 그 도표에 그 논쟁을 언급해 두었다. 다니엘서에서 'chazon' 환상을 확립하는 권세는 '네 백성을 강탈하는 자들'로 식별되며, 개신교도들은 그 권세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긴 계열의 시리아 왕들 가운데 하나로 보았고, 밀러는 그것을 로마로 식별했다.

그 때에 많은 자가 일어나 남방 왕을 대적할 것이요, 또 네 백성 중의 강포한 자들이 그 목시를 이루고자 하여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안티오쿠스는 알렉산더의 제국이 분열되어 생겨난 네 왕국 가운데 하나에서 이어진 왕조의 왕들 중 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8장 9절의 작은 뿔은 알렉산더의 제국을 뒤이어

나타났으며, 9절은 그들 중 하나에서 그 작은 뿔이 나왔다고 말한다.

그 중의 하나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다니엘서 8:9.

로마가 그 환상을 성취하는지, 아니면 약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리아의 왕이 그 환상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작은 뿔의 권세가 네 뿔 중 하나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네 바람 중 하나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논쟁을 포함한다. 이는 별로 논쟁거리도 아니다. 역사와 예언은 로마가 그리스 제국의 계승자가 아니라, 로마가 새로운 세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만일 로마가 네 번째 왕국이었다면, 9절의 '그들 중 하나'는 네 바람 또는 네 날개 중 하나여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면, 그것은 시리아의 뿔에서 나왔다.

밀러주의자들은 '너의 백성을 약탈하는 자들'로 표현된 세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그의 계책으로 속임수가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고,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이며, 평화를 빙자하여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다. 그는 또 군주 중의 군주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사람의 손을 쓰지 아니하고 부서지리라. 다니엘 8:25.

"군주 중의 군주"는 그리스도이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살았으므로, 밀러파는 1843년 도표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다. 도표에는 164라는 연도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실제로 성경적 근거가 없고, 단지 밀러와 개신교 신학자들 사이의 네 번째 왕국을 둘러싼 논쟁의 중요성을 표시하기 위한 표기였을 뿐이었다. 도표의 "164"라는 연도 옆에는 이렇게 적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죽음. 그는 물론 '군주 중의 군주'가 태어나기 164년 전에 이미 죽어 있었으므로 '군주 중의 군주'에 맞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날 재림주의는 "네 백성을 강탈하는 자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가르치며, 배도한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이는 "1843년 도표는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밀러파는 "사나운 용모의 왕"이 로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chazon" 환상을 확립하는 능력을 훼손하는 사탄적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은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18.

솔로몬이 그 구절에서 지적하는 이상은 'chazon' 이상으로, 다니엘 8장 13절에서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이교와 교황권을 지목하는 이상이다. 밀러주의자들에게 그 두 황폐케 하는 세력은 성경 예언의 넷째 왕국을 대표했으며, 로마의 넷째 왕국('네 백성의 강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상을 확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니엘 11장 14절의 '네 백성의 강도들'은 남방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스스로를 높이며, 그 이상을 확립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었다. 로마는 이러한 모든 특징을 충족했다.

제7장에서 넷째 나라는 그 이전의 나라들과 '다르다'고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이후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이 있었으니 두렵고 무섭고 심히 강하더라. 그것에게는 큰 철 이빨이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밟았고, 그것은 그 앞의 모든 짐승들과 달랐으며 또 열 뿔이 있었더라.... 그때 나는 다른 모든 것과 달라 심히 두렵고 이가 철이요 발톱이 늦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남은 것을 발로 밟는 그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고, 또 그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뒤에 올라온 다른 뿔, 곧 그 앞에서 셋이 떨어지고 눈이 있으며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진, 그 동류들보다 더 당당해 보이던 그 뿔에 관하여 알고자 하였노라. 다니엘 7:7, 19, 20.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왕국은 그 이전의 왕국들과 "상이하다"고 두 번이나 규정되었다. 만약 9절의 "작은 뿔"이 단지 시리아의 뿔(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연장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7장에서 로마에 앞선 짐승들은 사자, 곰, 표범으로, 모두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들이었다. 그러나 쇠 이빨과 늦 발톱을 가진 넷째 짐승에 이르러서는, 다니엘은 삼켜 멸하는 그 두려운 짐승을 대표할 만한 자연의 어떤 짐승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달랐다(상이하). 9절의 "작은 뿔"은 뿔들이나 두드러진 것들 가운데 하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바람과 날개로 상징된 영역들 가운데 하나에서 나왔다.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범법자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사나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말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들의 나라의 마지막 때'(네 왕국으로 분열된 그리스), 즉 '범법자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모든 나라는, 그 나라가 감찰자와 거룩하신 이의 목적을 이룰 것인지 여부가 판명되도록, 땅에서 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되어 왔다. 예언은 세상의 위대한 제국들—바벨론, 메대-바사, 그리스, 로마—의 흥기와 진전을 추적해 왔다. 이들 각각에 있어서도, 힘이 약한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되었다. 각각은 시험의 때를 맞았고, 각각은 실패하여 그 영광은 빛이 바래고 권세는 떠나갔다." 선지자와 왕들, 535쪽.

그리스 왕국의 끝("말기")에, 그들의 시험 기간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범법자들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엄한 용모의 왕"이 일어설 것이다. 그 왕은 "난해한 말"을 깨달을 것인데, 그는 유대인의 히브리어나 이전 왕국의 그리스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라틴어를 말할 것이다. 그 왕국은 모세가 서기 66년부터 70년에 이르는 포위전을 가져올 나라로 지목했는데, 거기서는 다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기근이 너무나 끔찍하여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녀들까지 먹었다.

모든 것의 풍성함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네가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보내실 원수들을 섬기리니,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모든 것의 궁핍 중에 있게 될 것이요, 그가 네 목에 쇠 멍에를 얹어 너를 멸망시키기까지 하리라. 여호와께서 먼 곳, 땅 끝에서 독수리처럼 날쌔 한 나라를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나라요, 얼굴빛이 사나워 늙은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젊은 자를 은혜로 대하지 아니하는 나라라. 그가 네 가축의 소산과 네 땅의 소산을 먹어 네가 멸망할 때까지 하리니,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 떼의 새끼를 남겨 두지 아니하여 그가

너를 멸망시키기까지 하리라. 또 그가 네 온 땅에서 네가 의뢰하던 네 높은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네 모든 성문을 에워싸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네 온 땅의 모든 성문을 그가 에워싸리라. 네 원수들이 너를 애워싸고 곤고하게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네 몸의 열매, 곧 네 아들과 네 딸의 살을 네가 먹게 되리라. 신명기 28:47-53.

다니엘서 2장에서는 네 번째 왕국이 "철"로 상징되었고,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쇠 명예"를 씌울 "한 민족"을 지목했다. 그 "민족"은 유대인들을 "멸할" 것이며, 독수리처럼 신속할 것이다. 독수리는 로마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언어가 "난해한 말"이어서 "네가 그 말을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일 것이다. 또 그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 "사나운 얼굴의 왕"으로 묘사된 바와 같은 "사나운 얼굴의 민족"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포위" 동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먹었다.

밀러는 모세가 예언한 권세이자 다니엘 2장의 넷째 '쇠' 나라이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를 말하던 그 '나라'가 이교 로마라고 인정했다. 밀러는 성경 예언의 넷째 나라와 다섯째 나라를 구별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그것들은 둘 다 단지 로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교 로마가 23절에서 일어난 뒤에도 그는 24절에 나타난 구분을 보지 못했다. 환상에서 작은 뿔은 9-12절에서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다시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오갔고, 23절은 이교 로마의 예언적 특성을 식별해 주지만, 24절에서 가브리엘의 해석은 여성형 로마로 바뀐다. 24절의 권세는 '강대한 권세'를 가질 것이나, '그러나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는 아니며: 그는 놀랍게 멸하고, 형통하며,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교황 로마는 이교 로마의 군사적 권세를 부여받게 되어 있었고,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것이었다. 그것은 온 세상이 '경탄하며' 따르는 그 짐승이기에 '놀랍도록' 멸할 것이며, 1798년에 끝나도록 '작정된' 처음의 진노가 성취될 때까지 '행하고 형통할' 권세였다.

그런 다음 25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던 구절들에서 설정된 번갈아 전개되는 흐름을 따라, 모든 역사학자들이 증언하듯 다른 종류의 "정책"으로 제국을 결집시킨 이교 로마를 다시 가리킨다. 이교 로마의 "술책"은 여러 민족들이 팽창하는 그들의 제국에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고, 이전의 제국들이 단지 군사력으로만 구축되었던 것과 달리 평화와 번영을 약속함으로써 제국을 세웠다. 이교 로마는 또한 "군주들의 군주"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었는데, 갈보리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을 때 바로 그렇게 했다.

그때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위해 해석해 주고 있던 두 이상을 다루며, '모습'의 'mareh' 이상(2,300일)은 참된 것이고,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chazon' 이상은 '오랜 날 동안'(1798년에 있을 종말의 때까지) '봉함(봉인)될 것'임을 밝혔다.

그 후 다니엘은 한동안 앓다가 일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mareh"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환상은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해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바로 그 환상이었다. 그런 이유로 가브리엘은 9장에서 돌아와, 다니엘에게 "mareh" 환상을 이해시키는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예언의 말씀을 계속 연구해 오다가 모세와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그가 처해 있던 포로 생활이 칠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온 땅은 황폐와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모든 민족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칠십 년이 차면,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하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5:11, 12.

모세에 따르면, 적국의 땅에서의 포로 생활은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일을 누리게 되는 때에 해당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곳에 사는 너희의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고, 칼을 빼어 너희를 뒤쫓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 그 땅은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이 황폐해 있는 동안 그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도 그 땅은 쉬고, 그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황폐해 있는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 위에 거주했을 때 너희의 안식년들에 그 땅이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위기 26:32-35.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두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적의 땅으로 흩어졌고 그동안 그 땅이 자기의 안식들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예레미야의 칠십 년에 관하여 역대기 저자가 이해했던 것을 이해했다.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그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들은 바사 왕국이 통치하게 될 때까지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다. 이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땅이 그 안식을 누릴 때까지였다. 그 땅이 황폐해 있는 동안 내내 그 땅은 안식하여 칠십 년을 채웠다. 바사 왕 고레스의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어,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한 글로 반포하여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하셨다.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를! 그는 올라가라. 역대하 36:20-23.

다니엘은 땅이 그 안식을 누리는 동안 원수의 땅에서의 칠십 년간의 흩어짐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레위기 26장의 '일곱 배' 저주에 근거함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에 순종하여 마침내 자신들의 흩어진 처지를 깨닫는 자들을 위해 그곳에 명하신 처방을 이행했다.

너희 중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겁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그들은 쫓기는 줄 알고, 그들은 칼을 피하듯 도망하며,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쫓지 않는데도 칼 앞에서 쓰러지듯 서로에게 엎어지며 넘어질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 앞에 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망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들도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쇠약해져 갈 것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도 쇠약해질 것이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곧 그들이 내게 거스르며 범한 그 범죄를 자백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거스려 행하였음을 인정하며, 또 내가 그들을 거스려 행하여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왔음을 인정하고, 그때에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나는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 땅은 또한 그들에게서 버려져 그들이 없는 동안 황폐한 채로 그 안식들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의 법도를 업신여기고, 그들의 마음이 나의 규례를 가증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거나 그들을 가증히 여겨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과의 내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는 내가 이방인들의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다. 나는 여호와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의 손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레위기 26:36-46.

다니엘 9장의 기도는 원수의 땅에 흠어져 있음을 깨닫는 이들을 위한 교훈의 모든 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 기도는 2장의 그의 기도와의 조화를 이루며, 두 기도가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소돔과 애굽이라 하는 그 큰 성의 거리에서 죽어 있던 자들, 곧 자신들 또한 흠어졌음을 알게 된 자들의 기도를 대표한다. 다니엘이 기도를 마칠 때, 가브리엘이 돌아와 "mareh" 환상을 설명하는 일을 마무리하는데, 이는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며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참으로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다가와 나를 만졌다. 그가 내게 깨닫게 하며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다니엘 9:20-22.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다니엘이 이 예언들을 묵상하며 시대를 깨닫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일련의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과 함께 해석이 주어졌으나, 선지자에게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내 생각이 나를 매우 번민하게 하였고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나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다니엘 7:28.

또 다른 환상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에 더한 빛이 비추어졌고, 이 환상의 끝에 이르러 다니엘은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던 그 거룩한 이에게 "이 환상이 얼마 동안일 것이냐?"고 말했다. 다니엘 8:13. 이에 주어진 대답,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14절)는 그를 당혹하게 했다.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간절히 구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칠십 년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경과해야 한다고 그가 환상 중에 하늘의 방문자가 선언한 이천삼백 년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그에게 부분적인 해석을 주었으나, 선지자가 “그 환상은 ... 여러 날 후의 일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절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한다. “나 다니엘은 기절하였고 며칠 동안 앓다가, 후에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노라. 나는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26, 27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전히 마음의 짐을 지고 있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다시금 연구하였다. 그것들은 매우 분명했는데, 너무나 분명하여 그는 책들에 기록된 이러한 증언들을 통해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을 채우리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 9:2.

예언의 확실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다니엘은 주께 이 약속들이 속히 성취되기를 간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기를 간구하였다. 그의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 이들과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하며, 그들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하였다. 선지자와 왕들, 553, 554.